

SPECIAL SESSION

The First Christmas Carol 첫 번째 크리스마스 캐럴

Session summary

In this session, we see Christ as the ultimate example of humility, leaving heaven to come willingly to Earth as a fragile and lowly infant. His human life provided us with an example of obedience, moving from the manger to the cross continually choosing God's will over His own comfort. Ultimately, He was exalted by the Father after the cross when He was raised to the throne. One day, every knee will bow and every tongue will confess Jesus is Lord (Phil. 2:10-11).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겸손의 궁극적인 모범으로 살펴봅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기꺼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인간적인 삶은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구유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 이후 아버지께서 그분을 높이시어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언젠가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것입니다(빌립보서 2:10-11).

Scripture

Philippians 2:5-11 빌립보서 2:5-11

The Point

God calls us to adopt the posture of a humble servant we see in Christ.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는 겸손한 종의 자세를 본받으라고 부르십니다.

INTRO/STARTER 5-10 MINUTES

Option 1

Let's be honest, it can be difficult for us to remember the reason for the Christmas season—celebrating *Immanuel, God with us*. With what seem like endless parties, shopping lists, and family gatherings, the season leading up to Christmas day is typically rushed and stressful. Beyond this busyness is a constant temptation to indulge ourselves. From grandma's cooking to the latest gadget, the inclinations of our hearts and flesh to be gratified through toys and treats is in overdrive. This season gives us countless opportunities to think about ourselves, our wants, and our wishes.

Busyness, excess, and self-gratification are all problems of the season, but the biggest hurdle in the way of celebrating and honoring Christ this Christmas is not primarily in the external distractions; it's in our tendency to want what we want, how we want it, and when we want it. We forget that life is not all about us, and Christmas surely isn't either. We must intentionally remember that Christmas is about Christ. Christmas is not primarily about celebrating time with family, making memories, or showing love through gift-giving.

The actions we take during this Christmas season (and every other day of the year) ought to be acts of worship toward the God who sent His only Son for us. As we dive into what some might call "the first Christmas carol," let's study with an attitude of worship.

What are some of your biggest distractions during Christmas? What holiday traditions help you remember to worship God for sending Jesus to save us?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의 진정한 의미, 즉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파티, 쇼핑 목록, 가족 모임 등으로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기간은 정신없이 바쁘고 스트레스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할머니의 맛있는 음식부터 최신 전자제품까지,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온갖 장난감과 맛있는 음식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 자신, 우리의 욕구, 우리의 소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분주함, 과소비, 자기만족은 모두 이 시기의 문제점이지만, 이번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경배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외부적인 방해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얻으려는 우리의 성향입니다. 우리는 삶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추억을 만들거나, 선물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그리고 일년 내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초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부르는 이 찬양을 함께 살펴보면, 예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여러분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어떤 명절 전통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나요?

Option 2

How do humility and service go together? Essentially, humility is being submissive rather than proud or arrogant. Humble people also tend to defer to others' needs and desires. Service means to be of use to or help others. It would seem obvious that humility and service go together because both uplift others above self. This doesn't mean we forget ourselves completely, just that we think of others more than we think of ourselves.

*Name someone you know who displays the characteristics of humility and service.
What are some behaviors and attitudes you can model after this person?*

Ultimately, Jesus is our model for humility and service. Though He is God, He humbled Himself to live as a man and served us by living a perfect life and dying for our sin. Who has helped anyone more than Jesus helped humanity? He submitted to the Father and placed our needs above His own. He teaches us to do the same for others.

겸손과 봉사는 어떻게 함께 어우러질까요? 본질적으로 겸손은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봉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거나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과 봉사는 둘 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함께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겸손과 봉사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름을 말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본받을 만한 행동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봉사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스스로를 낮추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봉사하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인류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분은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자신의 필요보다 우리의 필요를 우선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HIS STORY 15-20 MINUTES

THE POINT

God calls us to adopt the posture of a humble servant we see in Christ.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는 겸손한 종의 자세를 본받으라고 부르십니다.

Characters

Jesus: eternal Son of God; second Person of the Trinity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

Plot

This session takes us to Paul's letter to the Philippian church. This passage contains parts of an early church hymn, a carol relating to who Jesus is and what He did for us. May it shine brightly into your Christmas season, allowing you to see more of Christ and your need for Him during this time.

이번 시간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는 초대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가, 즉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성탄절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어, 이 시기에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그분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CHRIST'S HUMILITY: FROM HEAVEN TO EARTH

Though examples of humility can be rare, the Bible gives us many snapshots of Jesus' humility, so we can follow His example.

5 Have this mind among yourselves, which is yours in Christ Jesus, **6** who, though he was in the form of God, did not count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7** but emptied himself, by taking the form of a servant. (Phil. 2:5-7a)

This one great act of voluntary demotion Jesus took demonstrated the depths of both His love for us and His love for His Father. There are two parts to this great story in which the Son of God moved from heaven and took up residence on Earth: He let go and He took on.

We first need to see and believe Jesus indeed existed in the form of God before He came to earth in order to understand what He let go. Jesus—the Word—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He created all things, and without Him nothing exists (John 1:1-3). Jesus, in a great act of grace-filled humility, set aside His privileges of being God (without ceasing to be God) so He could join the human race for the sake of humankind.

For our sake, Jesus let go of more than we can ever imagine so we could enter into an eternal relationship with God the Father. As the apostle Paul wrote, Jesus demonstrated His grace to us by becoming poor so we might become rich in Him (2 Cor. 8:9). Christ temporarily gave up His exalted seat next to the Father so that we might enjoy God's exalted presence for eternity.

Not only did Christ let go, but He also took on. It's one thing to pass up a first-class ticket. It's quite another to move to the worst seat and choose to serve the rest of the people on the plane. Jesus emptied Himself of His right to glory and privilege and instead took on limitation and servitude. This was not a one-time decision. Throughout His human life, the Son of God followed the calling of a humble servant and lived a life of stripped-down humanity, beginning with Him being born as a defenseless, dependent infant. He continually chose the posture of a servant. He voluntarily washed feet. He faithfully endured insult and injury. Why? Because He came to serve and give His life for us, not to be served by us (Mark 10:45).

Jesus' whole life was drenched in humility. What can you learn about the way you should live your life from the way He lived His?

그리스도의 겸손: 하늘에서 땅으로

겸손의 본모습을 찾기란 쉽지 않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많은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가 그분의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빌립보서 2:5-7a)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신 이 위대한 행위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거하신 이 위대한 이야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내려놓음'과 '깊어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내려놓으셨는지 이해하기 위해 그분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을 먼저 보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곧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요한복음 1:1-3). 예수님은 은혜로 가득 찬 겸손의 행위로, 인간을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 하나님으로서 누리시던 특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하나님이시기를 멈추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고린도후서 8:9).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곁의 높은 자리를 잠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려놓으셨을 뿐 아니라 깊어지셨습니다. 일등석 티켓을 포기하는 것과 가장 불편한 자리에 앉아 비행기 안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특권을 누릴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대신 제한과 섬김을 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 내내 겸손한 종의 부르심을 따르셨고, 무력하고 의존적인 아기로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하여 철저히 낮아진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종의 자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충실하게 모욕과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45).

예수님의 삶 전체는 겸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삶의 방식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CHRIST'S OBEDIENCE: FROM THE MANAGER TO THE CROSS

From birth to His last day on earth, complete obedience—though not automatic—was the only option Jesus entertained. He was always about His Father's business, despite the consequences He knew would come and because He knew what would ultimately result from His suffering.

7 ... being born in the likeness of men. 8 And being found in human form,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even death on a cross. (Phil. 2:7b-8)

List some of the ways Jesus was tempted in Scripture and ways He would have been tempted because of His human nature. What encouragement should we receive because Jesus remained perfectly obedient to the Father?

Selfishness. Pride. Laziness. Gluttony. Lust. You name it, He faced it. Yet He rightly chose to resist and fight against each temptation, every single time. He didn't make all the right choices because they were easy or because He was without opportunity to sin. Christ obeyed because of His underlying desire and determination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On the night of His betrayal in the garden of Gethsemane, we have a glimpse into what might be the most critical moment of Jesus' life of obedience. Knowing the pain and suffering that awaited Him, the Son of God so fervently prayed for another way that His sweat was like blood drops (Matt. 26:39; Luke 22:44). Jesus agonized over this obedient choice, and He even petitioned for another way. Because He was human, obedience was not easy. Yet because of His love and commitment to the plan and glory of God, obedience was the only choice He would make. For the sake of God's purpose for humankind, He deliberately and joyfully took every agonizing step toward the cross. Enduring torture and taunting, Jesus remained on the cross until God's plan for that step of redemption was finished.

그리스도의 순종: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예수님은 태어나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까지, 비록 자동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완전한 순종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겪게 될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결과를 알고 계셨기에 항상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7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8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7b-8)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유혹들을 몇 가지 나열해 보고, 인간적인 본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셨을 만한 유혹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어떤 격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기심, 교만, 게으름, 탐식, 정욕... 어떤 유혹이든 그분은 모두 직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매번 모든 유혹에 맞서 싸우고 저항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것은 그것이 쉬웠기 때문도 아니고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근본적인 소망과 결단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겻세마네 동산에서 배신당하시던 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고통과 고난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길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분의 땀방울은 핏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마태복음 26:39; 누가복음 22:44). 예수님은 이 순종의 선택 앞에서 고뇌하셨고, 심지어 다른 길을 간구하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이셨기에 순종은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에 대한 사랑과 헌신 때문에 순종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분은 고통스러운 모든 발걸음을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향해 내디디셨습니다. 고문과 조롱을 견디시며 예수님은 구속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CHRIST'S EXALTATION: FROM THE CROSS TO THE THRONE

So far in this passage, the focus has been on Jesus, but Paul turned the focus from Jesus Christ's attitude to the actions of God the Father. And with a crescendo, the apostle gave us a beautiful refrain of celebratory praise.

9 Therefore God has highly exalted him and bestowed on him the name that is above every name, 10 so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11 and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Phil. 2:9-11)

Anytime we see *therefore* or *for this reason* in Scripture, we need to pay attention and figure out what is going on. Typically, the author is concluding with an important statement. In this case, the transition takes place in verse 9. Because verses 5-8 are true, verses 9-11 came to be. In other words, since Jesus humbled Himself by becoming a man and obediently followed God's plan all the way to death on a cross, God exalted Him and gave Him the greatest name of all: Lord of all. The Old Testament prophecy in Isaiah pointed to the exalted name of the Christ child long ago: "For a child will be born for us, a son will be given to us,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He will be nam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ternal Father, Prince of Peace” (Isa. 9:6). The majestic reign of Jesus Christ was restored through the Father’s act of exaltation because of His complete obedience.

Just as the word therefore or the phrase for this reason in Scripture is often important, the phrase so that is as well. In this passage, both phrases “for this reason” and “so that,” help us see a very important theme in the Bible: All things are for God’s glory. God’s exaltation of Christ had purpose; it wasn’t simply to celebrate the acts of Jesus as we tend to celebrate them here on earth. Granting Christ the name above every name was not a one-time gift like a trophy for Christ to leave on His bookcase. This name was a giving and restoring of the honored position He left behind when He entered Earth as a child in Mary’s womb. Jesus’ exaltation continues to echo throughout all of history. All of this, in turn, glorified the Father, the One who glorified the Son as He had been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John 17:4-5).

그리스도의 승귀: 십자가에서 보좌까지

이 구절에서 지금까지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행동으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절정으로 치닫는 가운데, 사도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의 후렴구를 선사합니다.

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10 이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9-11)

성경에서 "그러므로" 또는 "이러한 이유로"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자는 중요한 진술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은 9절에서 일어납니다. 5-8절이 사실이기 때문에 9-11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곧 만유의 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의 구약 예언은 오래전에 그리스도 아기의 높여진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놓였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6)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있는 통치는 그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 아버지의 높이심을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 또는 "이러한 이유로"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처럼, "이는 ~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러한 이유로"와 "이는 ~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두 표현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념하는 것처럼 단순히 예수님의 행적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가 책상에 놓아둘 트로피처럼 일회성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아기로 오시기 전에 누리셨던 영광스러운 지위를 되찾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귀는 모든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으며, 아버지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요한복음 17:4-5).

99 Essential Doctrines: Jesus’ Humanity

In addition to being fully divine, the Bible also affirms that Jesus is fully human. Not only does the Old Testament affirm that the Promised One (Messiah) would be a man (Isa. 7:14; 9:6; Mic. 5:3), but the New Testament also affirms that Jesus’ earthly life bore all the marks of being a human. He experienced the circumstances common to living as a human being, such as hunger (Matt. 4:2), thirst (John 19:28), weariness (Matt. 8:24), sorrow (John 11:35), and pain (the crucifixion).

99가지 핵심 교리: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심을 증거합니다. 구약성경은 약속된 메시아가 인간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이사야 7:14; 9:6; 미가 5:3), 신약성경 또한 예수님의 지상 생애가 인간으로서의 모든 특징을 지니고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배고픔(마태복음 4:2), 목마름(요한복음 19:28), 피곤함(마태복음 8:24), 슬픔(요한복음 11:35), 고통(십자가형)과 같이 인간이 겪는 모든 상황을 경험하셨습니다.

CHRIST CONNECTION

The early Christians celebrated the significance of Christ coming to earth (incarnation), His death on the cross for our sins, and His exaltation as the Lord of the world.

그리스도와의 연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성육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세상의 주님으로서

높임을 받으신 것의 중요성을 기념했습니다.

YOUR STORY 10-15 MINUTES

Group Questions

God's Story has always been designed to connect with your story. It is because of His Story that our stories make sense, have meaning, and carry on into eternity. Use the questions below to help think through how His Story connects with your own.

Have you encountered people giving up their rights and/or comforts for the sake of others? If so, how did it make you feel? Why do you think this type of sacrifice is so rare? Answers will vary.

How can we demonstrate in our lives the humble attitude Jesus displayed in becoming a human being? We demonstrate humility when we seek the good of others rather than our own, consider others as more important than ourselves, look out for the interests of others, and so forth.

What is the connection between humility and obedience? Humility and obedience are two sides to the same coin—those who are humbled before God and recognize their need for Him are those who are also willing to walk in obedience. Their obedience arises out of love for God because of His gracious forgiveness towards them.

How can we prepare ourselves for the potential consequences of our own obedience to the Father as we share in Jesus' humble attitude? Answers will vary.

그룹 토론 질문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우리의 이야기와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가 의미를 갖고,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권리나 편안함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왜 이러한 희생이 드물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써 보여주신 겸손한 태도를 어떻게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는 등의 행동을 통해 겸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겸손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또한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운 용서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한 태도를 본받아 아버지께 순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답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YOUR MISSION 10-15 MINUTES

Head

Setting aside His glory and privilege, Jesus took on servitude and suffering for the sake of God's will. A monumental example to follow, no doubt, but one we must pursue. Instead of giving in to the cravings of consumerism, Paul encourages us to take on the mind of Christ and follow the example of His life. Just as Christ lived and died for the sake of God's glory, we also give our humble attitudes and sacrificial actions as a continual offering of praise to the Father.

How can you adjust your plans to make this Christmas season even more about the celebration of your Savior and all He's done for you? Answers will vary.

What types of New Year's resolutions will you make that challenge you to deny yourself and pursue humility? Answers will vary.

머리말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영광과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섬김과 고난을 자처하셨습니다. 이는 분명히 우리가 따라야 할 위대한 본보기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소비주의의 욕망에 굴복하는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삶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고 죽으셨듯이,

우리도 겸손한 마음과 희생적인 행동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을 구세주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기념하는 데 더욱 집중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답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을 추구하도록 도전하는 어떤 종류의 새해 결심을 세우시겠습니까? (답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Heart

Many commentators agree that Philippians 2:5-11 was part of an early church hymn. If this is true, Paul would then be pointing to well-known and loved words that celebrated and affirmed the lordship of Jesus. Most of us can sing songs from our childhood, even after years of not hearing them. The early church carried on this beautiful tradition of memory and worship through song. The tradition continues to this day as we worship both individually and corporately for the glory of the Father in the name of Jesus through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What are some of your favorite songs and hymns that point to the truth of who Christ is? Answers will vary.

How can you use the words of these songs to encourage Christians in the faith and even call others to turn to Jesus in saving faith? Answers will vary.

마음

많은 주석가들은 빌립보서 2:5-11이 초기 교회 찬송가의 일부였다는 데 동의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찬양하고 확증하는 잘 알려지고 사랑받는 가사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오랫동안 듣지 않았더라도 어린 시절에 불렀던 노래들을 기억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노래를 통해 이러한 아름다운 기억과 예배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예배할 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좋아하는 찬송이나 노래가 있습니까? (답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래의 가사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구원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요? (답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Hands

Glorifying God in our humility will work itself out in our interactions with other Christians and in our actions in the world. In the midst of a Christmas season when people are easily driven to observe a holiday for selfish reasons, we should stand out as we unselfishly celebrate our Savior (Phil. 2:15). We should humbly serve one another rather than seeking to be served. We should live as pure children of God in the sight of all people so they glorify God when they see our good works (Matt. 5:16). And like Christ, though we will suffer in this world living lives of humility, we will be exalted when the time is right (1 Pet. 5:6).

In what ways do your Christmas celebrations point you to the accomplishments of Christ? Answers will vary.

How can you better demonstrate humility toward those around you? You can demonstrate humility toward others by placing others' needs before your own, thinking of ways you can serve others, following through with serving those needs, and so forth.

실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와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인 이유로 명절을 보내기 쉬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는 이기심 없이 구세주를 기념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빌립보서 2:15).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며,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마태복음 5:16).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겸손한 삶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때가 되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베드로전서 5:6).

당신의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업적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답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겸손함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방법을 생각하고, 실제로 그 필요를 채워주는 등의 행동을 통해 겸손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TIMELINE

Courage of the Disciples

John and Peter perform miracles and preach the gospel with boldness.

Community of Generosity

The church displays unity and generosity.

* Bonus Session

From Humiliation to Exaltation

Jesus' arrival is one of humility, obedience, and exaltation.

The First Martyr

Stephen reflects Jesus in his life and his death.

The Ethiopian Traveler

Philip faithfully shares the message of the gospel.

From Persecutor to Preacher

The opposition leader, Paul, is forever changed when he encounters the risen Christ.

Early Missionaries

Paul and Barnabas set out to plant churches among the nations.

ADDITIONAL INFO**Additional Resources**

Check out the following additional resources:

Leader Training Videos

One Conversations

Midweek Studies (to access your Midweek Study, go to lifeway.com/TGPMissionWin18)

Circular Timeline Poster

App (for both leader and student)

Additional suggestions for specific groups are available at GospelProject.com/AdditionalResources

And for free online training on how to lead a group visit MinistryGrid.com/web/TheGospelProject